

주택담보대출 금리 일제히 하락

시중銀, CD 금리 내림세 힘입어... 서민 금융부담 해소 기대

국민은행 최근 한달간 0.08%P 떨어져

양도성에증서(CD) 금리가 내리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서 서민금융부담 해소가 기대된다.

지난해 10월 이후 시작된 콜금리 인상 행진이 마무리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이번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44~6.64%로 지난주의 5.48~6.68%에 비해 0.04%포인트 하락했다.

주간 단위로 고시하는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CD금리 흐름에 따라 0.01~0.02%포인트 정도 움직인 적은 있지만 0.04%포인트 이상

급락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다.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는 8월 셋째주 연 5.52%에서 넷째주 5.51%, 다섯째주 5.50%, 9월 첫째주 5.49%, 둘째주 5.48%로 최근 한달간 0.08%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14일 CD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는 특수성 때문에 국민은행의 금리 하락폭이 여타 은행에 비해 가장 컸다. 우리은행의 이번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33~6.63%로 지난주 대비 0.

03%포인트 낮아졌다. 신한은행은 5.44~6.74%로 지난주 대비 0.02%포인트 낮아졌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전주 수·목·금요일의 평균금리를 산출할 때 국민은행보다 인상폭이 작았다.

하나은행의 이번주 고시금리도 연 5.66~6.76%로 전주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처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이어져 온 콜금리 인상 기조가 마무리

리됐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CD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경기 여건을 감안할 때 콜금리 인하가 많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CD금리 하락 요인이 되고 있다.

CD금리는 지난달 10일 연 4.71%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9월 들어서만 하락폭이 0.05%포인트에 달하는 등 낙폭이 커지는 양상이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콜금리의 추가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선명해질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인하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서민금융부담 해소도 기대되는 시점이다"고 말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단기적으로 CD금리의 추가 하락도 예상 가능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CD금리가 중장기적인 하락 기조로 접어들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퇴직연금 급팽창

2050년 2,100조원대로 불어 주식·채권 시장의 '핵' 부상

퇴직연금 규모가 오는 2050년 2천100조원대로 불어나 향후 주식과 채권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18일 증권연구원 이계간지인 자본시장포럼 여덟호에 게재한 '퇴직연금 증장기 전망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퇴직연금 규모는 올해 13조3천억원에서 2010년 44조3천억원, 2015년 143조5천억원, 2020년 314조5천억원, 2030년 832조2천억원, 2040년 1천461조6천억원, 2050년 2천110조9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퇴직연금 규모를 구하기 위해 장래 인구 추계와 거시경제 변수,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수, 근로자 월평균 임금 등을 추산한 후 기업들의 퇴직연금 가입비율이 초기 20%에서 2015년 70%로 높아지며 퇴직연금의 투자수익률은 연 7%에 달할 것으로 가정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퇴직연금 규모는 운용 수익률이 연 3%로 낮아지면 2015년 124조3천억원, 2035년 764조원, 2050년 1천291조4천억원 등에 그치지만 수익률이 11%로 높아지면 2015년 166조9천억원, 2035년 1천792조9천억원, 2050년 3천814조원 등으로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퇴직연금급은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2030년 이후에는 투자수익률에 관계없이 누적 적립액이 줄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합뉴스

장기 고정금리 대출 상품 출시

최고 10년간 '고정'

시중 은행들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최고 10년간 고정금리가 가능한 장기 고정금리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10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보금자리론)을 취급하고 있지만 기존 은행권에서는 고정금리 적용기간이 3~5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다음달 중순에 최고 10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고객들은 1년과 3년, 5년, 10년 중 고정금리 적용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10년짜리는 최저 6.30%의 금리가 적용된다. 10년 이후에는 농협 고시금리를 기준

으로 최장 30년까지 변동금리로 전환된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30일부터 최고 10년간 고정금리가 가능한 '셀프디자인 모기지론'을 판매하고 있다.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고정금리 기간은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이며, 대출기간은 10년부터 최장 30년이다.

대출금리는 1년 고정금리를 선택할 때 최저 6.05%, 10년은 최저 6.31%가 적용되며, 고정금리 약정 기간이 끝나면 종료시점의 3개월 변동금리로 자동으로 변경된다.

국민은행도 '포유(FOR YOU) 장기주택대출'의 고정금리 거주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 짜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포유 장기대출의 대출기간은 거주기간을 포함해 15년부터 최장 35년이다.

/연합뉴스



'피부 나이'가 같은母女들

노화방지 화장품 '트리타지' 출시를 기념해 한 회사가 18일 마련한 '피부 나이 같은 모녀' 선발대회. 이 행사에 참가한 엄마와 딸들이 활짝 웃으며 깨끗한 피부를 자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증시 視界 '긱'

외부 여건 호전... 장밋빛 전망

지난 14일 트리플위칭에이(지수선물·옵션, 개별주식옵션 만기일)를 무사히 넘긴 이후 주식시장에 낙관론이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상승탄력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증시를 자극하고 있고 20일(현지시간) 다다거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도 금리 동결이 점쳐지면서 금리 리스크도 일단 배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대 초반으로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완화되었다는 점도 낙관론의 배경이다.

18일 코스피지수는 13.20포인트 오른 1,374.30으로 마감, 1,370선을 회복했다. 39스닥지수 역시 7.17포인트 오른 613.39를 기록, 610선을 재차 넘어섰다.

'만기일 후폭풍'이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남아있지만 제반 여건으로 볼 때 향후 증시 전망은 상당히 밝다는 것이 전

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우선 미국 증시가 부동산 시장의 병각 우려에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글로벌 증시의 투자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다우존스지수의 경우 2000년 1월14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11,722.98)에 불과 162포인트 차로 바짝 접근한 상태로, 간혹 통화정책이 마무리 국면에 진입한 데 따른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9월 FOMC 정례회의에서도 금리 동결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진데다 미국 경제가 부동산 경기의 급행 우려감이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토대로 국내 증시 상승세 지속을 점치며 긍정적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해양심층수 2,000억 시장 뜬다

바다 깊은 곳에서 뽑아올린 청정 바닷물 '해양심층수'로 만든 생수, 소금, 두부, 간장, 맥주,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14일 학계 및 업계에 따르면 올 정국국회에 상정된 가장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해양심층수= 햇빛이 미치지 못한 수심 200m 이상 깊은 곳의 바닷물을 그린랜드를 출발점으로 2천년 만에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을 거쳐 지구를 한 바퀴 순환하며, 특히 인, 규소 등 무기염류가 풍부한 청정수이다.

올 정기국회서 관련법 통과 전망 내년 생수·화장품 등 쏟아질 듯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기업들이 본격적인 해양심층수 취수에 나서 생수, 두부, 화장품, 간장 등 해양심층수로 만든 다양한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이미 1976년부터 해양심층수 연구와 개발에 나서 현재 연간 해양심층수 시장규모가 2조원대이다. 시제품 개발이 완료된 업체와도 2천억원의 넘을 것으로 관련업계

는 추산하고 있다.

실제로 강원도와 고성군, ㈜대교 등이 합작으로 만든 ㈜강원심층수가 최근 법인 설립을 마치고 본격적인 해양심층수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앞서 2002년 설립된 울릉미네랄㈜은 2004년 말 울릉도 현포리 앞바다에 취수관을 설치, 국내 최초로 해양심층수 취수에 성공했으며 2005년 10월 정수 및 제염공장을 준공하고 올 6월부터 해양심층수에서 추출한 소금을 시판하고 있다.

국순당, 애경산업 등 8개 기업들도 지난해 말 8개 품목의 해양심층수 시제품 개발을 완료, 법령 정비가 끝나면 대로 본격적인 시판에 나서 계획이다. 시제품 개발이 완료된 업체와 품목은 ▲국순당-백세주 ▲애경산

"미국 유명대학 졸업장보다 좋은 경력이 CEO의 조건"

윌스트리트저널 보도

미국의 유명대학 졸업장이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 오르는 지름길이 아니며, 오히려 이보다는 학교와 직장에서의 좋은 경력이 더 중요한 요건이라고 미국의 윌스트리트저널(WJSJ)이 18일자로 보도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미국 내 우수 기업들의 CEO들은 동부 명문 사립 대학들을 지칭하는 아이비리그 출신은 극히 적고 미국내 코그 작은 주립대학 또는 덜 알려진 사립대학 출신이 대다수였다가 신문사의 설명이다.

에컨대 월마트의 CEO인 리 스킷은 피츠버그 주립대, 인텔의 CEO인

폴 올렐리니는 샌프란시스코대, 코스트코 홀세일의 CEO인 제임스 시네갈은 샌디에이고 시립대 출신이다. 이는 '합의' 졸업생 네트워크를 가진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하는 게 기업을 경영하는 최고위층으로 성공하는 지름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신문은 유명 대학 졸업장보다 중요한 것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라는게 상당수 CEO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라고 전하고 어는 대학에서든 그 곳에서 도전정신을 키워나가고 다양한 배경 출신의 학생들과 어울리며 경험을 쌓는 게 기업의 최고봉으로 오르는데 도움이 된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중소 73% "추석 상여금 지급"

채용포털 잡코리아는 국내 중소기업 375개 업체를 대상으로 올 추석 때 상여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72.8%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추석 상여 품목(복수응답)으로 이들은 '선물(68.1%)', '특별 보너스(59.3%)', '정기 보너스(18.7%)', '특별 휴가(17.6%)' 등을 들었다. 또 이들 기업은 추석 선물로는 '건장식품·식료품(37.1%)', '특별 상여금으로는 '20만원(5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관련 추석때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경기가 안좋아서(38.2%)', '회사 규정에 상여금·선물을 주지 못하게 돼 있다(17.6%)' 등을 들었다.

/연합뉴스

추석 맞아 '정관장' 홍삼 선물세트 출시



한국인삼공사(www.kgc.or.kr)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정관장' 홍삼 선물세트를 새롭게 선보였다.

40만원대의 '정관장 VIP' 선물세트에서 3만원대의 '감사 E호'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출시됐다. 특히 이번 에 첫선을 보인 '정관장 D 플러스'는 지리산토종꿀과 홍삼을 결합한 신제품 '홍삼밀원'에 '바이탈 홍삼' '홍삼캔디'로 구성 실속과 고객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삼공사는 10월 5일까지 정관장 '마음 가득 건강가득' 고객 사은행사도 펼친다. 20만원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정관장 상품권' 1만원권 1매를 증정하며 '홍삼밀원' 구매 고객에게는 '에비' 팩키지(15g*5) 세트를 지급한다. (1만개 한정 지급)

'정관장' 선물세트는 정관장 가맹점이 백화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한국인삼공사 공식쇼핑몰(www.kgshop.or.kr)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대한뉴웨이(광주지점)	전남 광주 병원의원 제약영업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0	062-372-0250
KBSJOB	금융생명 콜센터 대표전화 인바운드 상담직 채용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9/20	02-516-6190
뉴에이스*	헤니로텔레콤 고객센터 인바운드 일반상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9/21	031-267-1861
㈜엔지테크	병원프로그램 개발자 채용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1	062-675-8750
풍기산업(광주공장)	생산관리 사무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9/22	062-973-6011
㈜유틸/제이티	회계/사무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9/24	062-681-4445
한국게임사관학교	제2기 정규과정 교육생 모집	고졸/경력무관	고졸/경력무관	09/25	062-350-2446
㈜햇시스	기술영업부/광주영업소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09/25	031-495-4380
서암기계공업*	사무관리 신입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5	062-951-0081
㈜그린텔	KTF 광주웹서비스센터 정규직 인바운드 상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9/26	042-223-4900
㈜에스티에스커뮤니케이션	[광주] 삼성생명 콜센터 상담전문인력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6	062-600-0802
㈜현우기공	전산 및 총무관리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9/26	062-954-4369
엔피엘	MD, 웹디자인, 스타일리스트 직원구함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9/27	062-513-9222
한국축육광공사	기술직 신입/경력 지적 확정측량 관리직 경리 및 비서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7	031-783-7920

(*광주지점코리아 062-6210 제공)